

추석 특별기고

보름달 같은 세상을 꿈꾸며



문 순 태 소설가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꽃보다 아름답다. 둥근 보름달처럼 가지런하고 화사하다. 민족의 대이동을 방불케 하는 차량 행렬,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미풍양속인가. 부모 형제와 친지들, 조상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달려가는 마음이 밝고 선하다. 가진 것 없어도 결코 슬퍼거나 가난하지 않다.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설렘과 행복감으로 충만해 있다. 마음마다 귀향 환영 플래카드가 가을 바람에 나부끼고 추석맞이 별초를 하나씩 휘날리는 예초기 소리를 듣는 것도 행복하다. 시골에서 자식들을 기다리는 노부모의 기다림 또한 빛나는 희망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2014년의 추석은 우울하다.

세월호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울 추석을 맞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슴이 아플 것이다. 생가슴이 뺨 뚫린 듯 빈자리가 더욱 허전할 것이다. 아무리 보름달이 눈부시게 세상을 비출지라도, 이들의 상실감을 생각하면 오복구슬이 싸하게 아러온다. 아직도 가족이 목숨에 갇혀 있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고 고통스러울까. 지금 팽목항은 또 얼마나 을씨년스러울까. 안타깝게도 노란 리본도 빛이 바래고 있는 것만 같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더욱 요원해져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완전히 두 쪽으로 쪼갠 것 같아 안타깝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분열로 치닫해 되었는데. 재발 추석을 계기로 하나가 되었으면 싶다. 그래도 추석을 맞아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우리 주변에는 집도 없이 떠돌며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들, 아픔으로 병마와 싸우는 환자, 도전에서 실패한 낙오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

는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달빛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이들을 감싸안아주고 위로를 아끼지 말아야겠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삶에 지쳐있다. 그래서 21세기를 ‘피로사회’라고 하지 않는가. 성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성과주의 사회에서는 자칫하면 낙오자가 되기 쉽다. 그리고 이들 낙오자들은 우울증과 같은 병리적 증상을 앓고 있다.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처럼 죽도록 일만하다가 지쳐버린 사람들. 남의 잣대에 맞춘 성공을 진짜 성공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평생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정신도 몸도 지쳐버린 이 같은 ‘피로사회’에서는 사색적인 삶, 영감을 주는 무위(無爲)적저(寂寂)의 삶 같은, 삶에 침표를 찍는 휴식의 가치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성 대신 긍정성이 지배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해서는 안 된다.” 보다는 “해도 된다.”가 최상의 가치가 되는 긍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긍정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위로와 나눔의 미덕이 필요하다. 가득 채우려는 욕망과 경쟁적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롤프 얀센이 ‘르네상스 소사이터’

에서 21세기는 행복해지기 위해 물질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비움의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움과 비움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채움과 비움과 나눔은 보름달처럼 같은 그릇 안에 있다. 둥근 보름달은 빛의 나눔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달이 차츰 기울어 세상이 어두워지면 다시 둥글게 빛으로 가득차지 않은가. 우리는 이번 추석을 달의 마음, 달의 정신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지나가게 마련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이다.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신선한 공기, 빛나는 태양/ 맑은 물.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 이것만 있으면 낙심하지 말라’는 괴테의 말을 상기시켜 본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내가 가진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지금 고독스럽고 가난하다고 해서 결코 기죽거나 비굴해서는 안 된다. 보름달 같은 세상을 꿈꾸며, 넉넉하고 밝고 당당하게 살자. 두꺼운 맥장구름이 지상을 덮을지라도 보름달은 어김없이 구름 위를 비추지 않은가.

社說

‘성년’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 당부한다

현대미술 축제 2014 광주비엔날레가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부터 11월9일까지 6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로 10번째, 창설 20주년을 맞이한 광주비엔날레에는 38개 국, 103개 팀(111명)의 작가가 참여해 ‘탄전을 불태우라’라는 주제가 지닌 역동성과 혁신성을 담은 작품 413점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작가의 90%가 광주비엔날레에 처음 참여하는 신선 작가들로 구성된 전시의 참신성을 강조했다. 전시관 전시에 이외에 국제 포럼 등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열리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퍼포먼스와 공연, 전시가 하나로 어우러진 통일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국제 미술계에 새로운 미학적 가치와 아시아성의 담론을 던질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푸른길 공원, 임동성당 등 광주 20개 공간에서 시민들이 꾸민 커뮤니티 공간을 만날 수 있다. 비엔날레 광장에

서는 토·일요일 오후 3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연이 함께 열린다. 성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단순한 미술이벤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광주의 대표 브랜드다. 지난 2002년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거점 도시로 선정된 데에도 이 같은 ‘비엔날레 효과’를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비엔날레의 성공 여부는 완벽한 준비와 외국인에 비롯한 관람객 규모, 출판작의 예술성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 개막을 목전에 두고서도 작품 설치가 지연되고 전시 중에 작품이 망가져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구태를 되풀이해서 안 된다. 무리한 예산 동원도 지양해야 한다. 이 모두는 비엔날레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철저한 준비, 세심한 관람객 맞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비엔날레가 명실상부한 국제 비엔날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 ‘복지 파산’ 안되게 정부가 지원해야

기초연금과 영유아 무상보육 등 박근혜 정부의 대규모 복지 관련 대선공약이 시행되면서 지방재정이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급기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대로는 ‘복지 디폴트(default·자금 불능)’가 불가피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중한 복지비용으로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부담을 지고, 또 많은 사람이 뒤를 따르며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실로 장관이었다. 때마침 풀코스를 펼 우승 주자가 들어오고 있었지만, 연도의 시민들은 운동복에게 손을 흔들었다. 심지어 풀코스 우승자도 그에게 ‘브라보’를 외치며 손을 흔들고 지나갔다. 그가 결승선에 이르자, 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일일이 그를 포옹하며 따뜻하게 맞이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그들은 우승자의 영광보다 장애를 딛고 일어난 그의 도전을 훨씬 귀하게 여겼으며, 그에게 진정한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준 것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많은 사람이 같이 울고 있었다. 2003년의 어느 봄날, 민주주의 후예들의 마라톤 잔치는 그렇게 저물어갔다. (지식나눔네트워크 대표)

악화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995년 61.0%에서 올해 36%로 추락했다.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 등으로 충당하다 보니 채무도 8000억 원에 이른다. 빚더미 속에 복지예산은 지난 2010년 8312억 원에서 올해는 1조2340억 원으로 4028억 원이나 증가했다. 전남도도 올 전체 예산은 5조8031억 원으로 2150억 원이 줄었으나 복지분야는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1조9172억 원이 책정됐다. 이로 인해 자체사업이나 기반시설 등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재정 위기가 지속되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지자체의 아우성을 염살로 여기면 안 된다. 정부는 우선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정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올리고 교부세 지원과 지방소비세율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박경철의 ‘오디세이아’



장애 딛고 일어난 마라토너

근대 올림픽경기를 준비하던 쿠베르탱 남작에게 언어학자인 ‘이셀 브레일’ 교수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이긴 아테네의 전령이 40km를 쉬지 않고 달려, 초조하게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전보를 전한 후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내용이였다. 이 이야기에 감명받은 쿠베르탱은 고대 올림픽 종목이 아니었던 마라톤을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는 정식 경기로 채택,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영광된 전령의 계승자가 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전설이 신화가 되고 신화가 역사가 된다’지만, 이 내용은 분명 사실이 아니다. 정확한 기록으로 정평이 나있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 당시 전투는 페르시아군과 아테네군간에 벌어진 결정적 전투로, 전력상 5대 1 정도로 아테네가 열세였다고 한다. 혼자 힘만으로는 대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아테네는 페이디피데스를 전령으로 파견하여, 숙적인 스파르타에 잠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스파르타 지도부는 이

를을 달려 스파르타에 도착한 페이디피데스에게 ‘만일에는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전통을 내세워 출병이 늦어질 것을 통보한다. 결국, 아테네는 페르시아와 단독으로 맞서게 되었고, 뒤늦게 스파르타군이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전쟁이 끝난 후였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아테네는 이후 스파르타와 양강체제를 구성하며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누리게 된다. 즉, 페이디피데스가 가리온에서 가장 잘 달리는 자임에는 분명했지만, 승전보가 아닌 원군을 청하기 위해 달려온 셈이다. 어쨌든 별 소득없이 스파르타에서 돌아온 페이디피데스는 자신이 달리는 도중 목신 ‘판’을 만났는데, 그때 판이 아테네의 승전을 약속했었다고 시민들에게 전했다. 여기에 감동한 아테네 사람들은 뒷바라지에 언어장애와 시각장애 그리고 뇌성마비까지 가진 복합 장애인이었다. 역시 단축 코스에 도전했던 그는 힘겹게 결승선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접근해왔고, 연도의 늘어진 시민들은 그에게 ‘브라보’를 외치며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내

고 있었다. 또 그의 주변에는 자신의 경기 대신 그의 뒤를 따르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함께 달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앞에서 박수를 쳐주고, 누군가는 그의 앞에서 길을 인도하였으며, 또 많은 사람이 뒤를 따르며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실로 장관이었다. 때마침 풀코스를 펼 우승 주자가 들어오고 있었지만, 연도의 시민들은 운동복에게 손을 흔들었다. 심지어 풀코스 우승자도 그에게 ‘브라보’를 외치며 손을 흔들고 지나갔다. 그가 결승선에 이르자, 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일일이 그를 포옹하며 따뜻하게 맞이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그들은 우승자의 영광보다 장애를 딛고 일어난 그의 도전을 훨씬 귀하게 여겼으며, 그에게 진정한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준 것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많은 사람이 같이 울고 있었다. 2003년의 어느 봄날, 민주주의 후예들의 마라톤 잔치는 그렇게 저물어갔다. (지식나눔네트워크 대표)

기고

‘2014 ICID 광주총회’의 의미

(국제관계배수위원회)



박재순 ICID광주총회 공동조직위원장·前 농어촌공사 사장

인류생활에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자원은 물과 식량이다. 인류문명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물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지가 바로 문명의 발상지였던 것이다. 문명이 발달하다보니 문화도 발달하게 되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육구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문화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인간은 물의 수요에 대한 안정적 공급의 중요성이 눈을 뜨게 된다. 그리하여 저수지와 보를 만들어 물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물을 가두는 지혜를 발휘했다. 인류문명이 발전할수록 저수지는 물론이고 물을 위한 길, 즉 옥수로와 배수로를 만들고 양수장과 배수장 등 수리시설을 만들었다. 이처럼 물은 문화와 문명의 발상지이다. 물은

문명과 문화와 낳고 또 발달된 문명과 문화는 물을 다각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식량이 부족한 나라의 최우선 관심은 당연히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지구상의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기아와 목마름으로 고통 받고 있다. 생명도 부하지가 어려운 가난한 나라에서 문화의 싹이 틀 수 없듯이 최소한의 풍요는 생존과 문화의 토양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식량생산 감소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수자원, 특히 농업용수 관리의 중요성과 대책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도 이 때문이다. 기후변화 시대에 있어 ‘농업과 물의 지속가능성’은 ‘글로벌 어젠다’임에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지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농업과 수자원 분야의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농업용수 분야의 UN’이라 할 수 있는 ICID, 국제관계배수위원회 총회가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세계 60여 개국에서 정부 각료, 학자 등 1200여명의 수자원 및 농업 전문가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

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관계배수의 의미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인류가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원인 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호남의 중심도시 광주에서 농업용수 분야의 국제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는 농업이 발달한 호남의 중심도시이자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사를 국제사회의 소개하기 매우 좋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총회를 주관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총회를 계기로 한국 농업과 관계배수기술의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우리 농업의 경제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관리 선진국으로서 농업 SOC 기술수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농업기술의 원조 수혜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농업기술을 지원받는 공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광주총회는 우리나라가 물관리 기술과 물관련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수자원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려나가는 출발이 될 수 있다. 특

히 총회 프로그램 중 하나인 ‘개발도상국 농업개발 지원을 위한 라운데이블’은 우리 농업기술 수출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광주총회의 슬로건인 ‘모자, 나누자’ 생명 물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수자원과 식량의 나눔을 통한 인류의 공생과 평화이다.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물과 식량부족, 빈곤 등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민주와 평화의 도시인 광주의 이미지와도 부합한다. 이번 총회의 주제인 ‘기후변화 시대에서의 농촌용수 확보’는 의심할 여지없이 21세기에서 찾아볼 수 없을 가장 긴급한 안건이다. 기후변화라는 인공적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은 이미 기후변화와 더불어 물과 식량에 내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인류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물과 식량, 그리고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2014 ICID 광주총회’에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無等鼓

추석이 코앞이다. 각지로 흩어져 생활을 꾸려가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때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고마웠던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좋은 날”이면 더 생각나는, 지금을 같이 있는 이들이 그리워지는 때이기도 하다. 추석하면 편지 한 통이 떠오른다. 명절을 소재로 한 이런 저런 에세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글이다. 지난해 추석 즈음 월간 잡지 ‘예향’에 실린 ‘감나무 아래서’다. 연극 ‘목란 언니’, ‘빨’을 쓴 보성 출신 김 은성 작가가 세상을 떠난 할머니 ‘귀엽씨’에게 보낸 편지다. 정한 사투리로 적어 내려간 편지는 아련하다. 회상적 살 돈이 없어 ‘석유 지름이 직방이라고 해서 횡배를 앓는 어린 딸에게 지름 한긋 먹버려 먹일’ 정도로 가난했던 할머니, 그녀는 그악스럽게 돈을 집착했고 작가는 그게 못내 싫었다. 할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 한데, 추석 즈음이었던 그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이끌려 가는 곳이 있다. 30년 전 보성군 조성면 석부마을 할머

니 집 마당. 그리고 딸이 단 흥시 냄새. ‘할머니 이름은 왜 귀엽이당가?’, ‘울 아버지가 귀엽다고 귀엽이라고 지었제’, 할머니 등에 얹혀 대화를 나누던 할머니의 이름을 어느덧 서른 중반이 됐다. 할머니의 삶을 여천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여자의 삶으로, 조금 멀어져 보게되는 눈이 생겼더라 편지를 마무리한다. “귀엽씨, 올 추석에는 감나무 아래 기다리고 있을게요. 변비 걸려서 갱생이 새까마냥 강강 거릴 일 생기더라도, 할머니가 간직 대로 툭툭 따주는 감들을, 그 벌건 흥시들을 허친나게 먹어볼라니까요.” 명절은 따뜻함이다. 힘든 짐을 내려놓고 위안을 받는 날이다. 올해는 더욱 그렇다.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세월호 유족들에게도, 세상사에 지친 당신과 나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번 추석은 서로가 서로를 다독이는 그런 날이면 좋겠다. 세상 떠난 이들, 남아 있는 이들, 그리운 이들 모두 모두 감나무 아래서 만나 맞닿은 흥시를 배터지게 먹으면 좋겠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흥시가 있는 추석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 부 2200-642 여론대체부 2200-696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액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